

Trust your choice!

홈워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마셔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홈워터 맛있게 즐기는 방법



차게 해서 마시면 더 맛있어요.

홈워터를 냉장고에 시원하게(4~15도) 보관해 차갑게 마셔보세요! 잔존산소량도 증가하고 청량감도 있어 보다 맛있게 마실 수 있어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차로 마셔도 좋아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보리차, 눈에 좋은 결명자차, 피로회복에 좋은 둥글레차. 비타민이 풍부한 녹차 등 건강하고 맛있는 방법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레몬, 허브등과 함께 다양하게 즐겨요.

우리 집에서도 홈워터에 레몬이나 허브잎을 띄워 카페 분위기를 내보세요! 상큼한 레몬향이 나서 더욱 청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설문 EVENT



홈워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0분께 **백화점 상품권(5천원)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 이벤트 기간: 2012년 11월 20일까지
- ★ 당첨자 발표: 2012년 11월 27일(화)
- ★ 당첨 확인: 홈워터캠페인 사이트 내 공지 및 개별 연락
- ★ 모바일 주소: m.homewater.kr/poll
- ★ 웹주소: www.homewater.kr

www.homewater.kr

주부 9단의 홈워터 라이프



'홈워터'는 건강한 우리나라 수돗물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 간간하게 챙겨주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홈워터 T-타임'이 엄마와 함께 시작합니다.

홈워터 T-타임 문의 : 02-519-1207,1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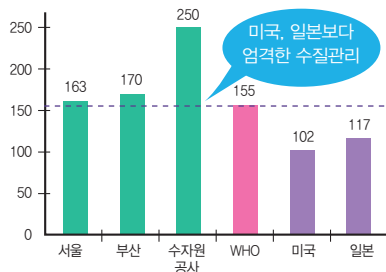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에게 더 깨끗하고 건강한 마실 물을 물려주기 위하여

Think again

이제 엄마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냉정하게 비교 평가하고 더 좋은 수도물을 위해 함께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 일,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수도물, WHO 권고 기준 이상의 엄격한 수질관리



우리나라 수도물은 WHO(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수질 검사 항목보다도 더 많은 항목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WHO가 권고하는 수질검사 항목 155개.
우리나라는 최대 250개 수질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102개, 일본 117개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UN 국가별 수질지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 수도물은 122개국 중 8위로 프랑스, 스웨덴보다 더 깨끗한 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경제성

우리나라 국민 1명의 수도물 사용량은 **하루 평균 176리터**. 이를 기준으로 사먹는 샘물과 경제성을 비교해 보았어요.

★ 먹는 샘물 사용 시 1일 물값

(1리터 평균 500원 기준)

$$\begin{array}{rcl} 500\text{원} & & 88,000\text{원} \\ \times 176\text{L} & \rightarrow & \times 4\text{인가족} \\ \hline 88,000\text{원} & & 352,000\text{원} \end{array}$$

★ 수도물 사용 시 1일 물값

176L사용시 1인 1일 수도 요금은 107원

※ 단, 176리터는 식수와 생활용수를 모두 포함한 것임

환경

우리나라에서 매년 생산되는 280억 개의 패트병 중 약 20%만이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
패트병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도 무려 25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수도물을 마시는 일은 우리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환경을 지켜내는 또 하나의 작은 실천입니다.



홈워터 T-타임, 엄마와 함께 시작합니다.

Try now

우리 가족이 마시는 물, 직접 확인해보세요.

간단한 PH테스트부터 해보시고 전문가의 수질 검사도 받아보세요.

★ PH테스트란?

수질 검사 시 제일 처음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테스트로 물의 산성 확인을 통해 식수 음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테스트 준비물

- ① PH테스트지
- ② 우리 집 수도물, 정수기물 또는 구매한 먹는 샘물

★ 테스트 방법

PH테스트지에 각각의 물을 묻혀 색상의 변화를 살펴보세요.
검사 결과 테스트지의 색상이 PH 5.8~8.5에 해당하는 색으로 나오면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 옆의 색상표를 참고하세요)

만약 정상 범위에 있지 않을 경우, 이렇게 하세요.

테스트 결과 정상 범위 내에 들어 있지 않다면, 각 지역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수질 검사를 신청해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 결과를 전하여 아파트 단원에서 점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합니다.

★수질 검사 신청

1. 온라인 신청: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2. 전화 신청: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등 지역 거주자의 경우 **지역번호 + 121**로 신청

★ 수질 검사를 신청하시면 PH테스트 외 탁도, 잔류염소, 철, 동 등 5가지 이상의 세부적인 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PH테스트를 통해 우리집 수도물에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본다면 언제나 깨끗한 수도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